

보도시점 2025. 5. 4.(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5. 5. 3.(토)

캄보디아에 물산업 협력 사절단 파견

- 우리 물기업들과 수요처인 캄보디아 부처, 지자체와의 일대일 기술상담회 개최
- 최고위급 대화로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 정책 수출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캄보디아와 물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물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김완섭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산업 협력 사절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절단은 지난 3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3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과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의 후속 조치로서 추진된다.

* 환경부, 우리나라 물기업(18개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으로 구성

캄보디아는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뭄에 취약하고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29%, 47%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향후 수자원 인프라, 상·하수도 확충, 수질관리 등 물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물관리 사업을 주로 정부부처가 발주·수행하는 특성이 있어, 환경부는 기존 정부 대 정부 협력(G2G)을 넘어서 캄보디아 정부 대 우리나라 기업들 협력(G2B)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번 사절단을 전략적으로 구성, 기획하였다.

* 유엔 지속가능목표(UN SDG) 6.1.1 및 6.3.1 :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및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수 비율 기준 (2022년 기준 UN Water 자료)

우선, 환경부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공동으로 ‘한국-캄보디아 물산업 협력 포럼’을 5월 6일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캄보디아 물관리 주요 부처들과 국제기구들에서 현지 물관리 사업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물기업들은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상품들을 소개하여 상호 실질적 협력을 위한 이해를 높인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측에서는 물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수자원기상부, 상수도를 관할하는 산업과학기술혁신부, 하수도를 담당하는 공공사업교통부 등 6개 부처에서 고위급부터 실무자까지 참석하고,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 관심을 보인 현지 기업들도 초청되었다. 캄보디아 물관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별 지역사무소에서도 참여한다. 특히, 우리 물기업들의 기업별 핵심 기술과 상품을 현지 수요처인 중앙부처, 지자체, 현지 기업들에게 1:1로 설명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기술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물산업 시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술과 상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1:1 수주 기회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 추가하여 우리 물기업들과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코트라 현지 무역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회 등이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현지 상황과 사업 기회, 위험요인, 금융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캄보디아 현지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한다. 또한, 5월 7일에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바켕 정수장(프놈펜 소재)에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기술 수요를 확인하고, 프놈펜 상수도 공급을 총괄하는 프놈펜 상수도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들에게 직접 기술과 상품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김완섭 장관은 캄보디아 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최고위급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홍수예보 정책 등 우리의 앞서가는 물관리 정책 수출을 추진한다. 5월 5일 훈 마넷 총리를 총리 관저에서 만나 양국 간 기후위기 대응 및 물관리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5월 6일 물산업 협력 포럼 중 김장관은 캄보디아 타오 체타 수자원기상부 장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기후 대응력 강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홍수·가뭄 조기경보, 디지털 기술 활용, 제도 개선 등 물관리 분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5월 7일에는 캄보디아 각 부처 청사에서 온 폰모리노트 캄보디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험 반디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장관, 소펠라엣 이응 환경부 장관과의 연쇄 양자면담을 갖는다. 면담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상수도 확장,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등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요청하고,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등 환경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캄보디아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및 빠른 산업화·도시화에 대응한 물관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물관리 분야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캄보디아 물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한국-캄보디아 물산업 협력 포럼 개요.
2. 참여기업 명단.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01-763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개요

- 캄보디아의 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사업 수요자*와 국내 물기업 간 기술협력 및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 * 캄보디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 등
- 일시·장소 : '25. 5. 6.(화) 09:00~17:30, 하얏트 리젠시 호텔(프놈펜)
- 참석범위
 - 환경부, 국내 기관 및 물기업 18개사 등
 - 캄보디아 물관련 부처, 지자체,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등

□ 주요 내용

- 개회식 : 개회사(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환영사(캄보디아 수자원 기상부 장관), 물관리 협력 MOU 체결(대한민국 환경부-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 세션 1 : 캄보디아 물 분야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
 - (발표자)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댐, 관개, 수문 등 물관리 전반), 산업 과학기술혁신부(상수도), 공공사업교통부(하수도), 국제기구, 한국수자원공사*
 - * 캄보디아, 국제기구, 우리나라간 협력 사업 제안
- 세션 2 : 한국 공공기관 사업 및 우리나라 물기업 기술·사업 소개
 - (발표자) 공공(KOICA), 민간(국내 기업 12개사)
- 비즈니스 미팅 : 수요자-물기업 매칭
 - 현지 물관리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코트라에서 초청한 현지 기업들과 우리 물기업간 일대일 연계 상담

☐ 국내 물기업 18개사 참여 예정

기업명	주요생산품
그린텍아이엔씨	ICT 기술기반 상하수도 관망관리
내강산업	수문, 수문밸브
두원티이지	소형 담수화 설비
부강테크	AMX, 하수처리, 혐기소화
삼진정밀	수처리용 밸브 및 시스템
신정기공	밸브, 펌프
아모그린텍	수처리용 멤브레인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원격검침기, 수위계
에이치에스씨엠티	NRW 상수관망솔루션
우리기술	초음파 레이더 수위계, 유량계, 슬러지 계면계
유솔	스마트 누수감지
자인테크놀로지(주)	초음파 유량계
천세산업(주)	정량펌프
탐전자산업	상하수도관로검사용 로봇
티앤이코리아	하·폐수처리용 터보 송풍기
한성산기	수처리 펌프
유신*	인프라 사업 설계·감리(엔지니어링사)
칠보산업*	소수력발전,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감축

* 현지 진출기업 2개社

※ 가나다 순으로 정렬